第22回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서울特別市出演作品

重要無形文化財第49號

민속극
송파산대놀이

서 울 特 別 市

概　　要

山台놀이는 서울을 中心으로 京畿地方에서 傳承되어온 탈놀음으로 구파발, 녹번, 애오개(阿峴)等에 本山台가 있었고 그 分派로 보이는 楊州舊邑, 퇴계원, 松坡, 노들(노량진)等地에 山台놀이가 있었으나, 現存하는 것은 官員官奴놀이의 性格을 띈 楊州別山台놀이와 商易地에서 盛行하던 탈꾼패놀이의 一種인 松坡山台놀이 뿐이다. 松坡津(現 蚕室大橋 근처)은 서울近郊 5大漢江 나루터 중의 하나로 水運으로는 江原道까지 배가 往來하였고 陸運으로는 馬行商들이 全國을 돌았던 商易地였다. 朝鮮後期에는 全國에서 가장 큰 열다섯 鄕市 中의 하나로 손꼽히는 商業的 富村이었기 때문에 松坡山台놀이의 經濟的 與件이 갖추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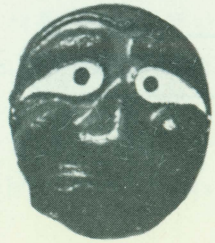
그러나 近代에 이르러 東大門밖의 牛市場과 千戶洞市場等이 생겨나 松坡의 商業的 勢力이 弱化되었으며, 雪上加霜으로 乙丑年(1925) 漢江大洪水로 因하여 마을이 流失되어 新松坡(가락동)와 돌마리(石村洞)로물러나 定着하면서부터 차츰 탈놀이도 시들어 갔으며 겨우 命脈만을 維

持해 오다 1973年에 重要無形文化財 第49號로 指定되면서 부터 다시 傳受活動이 活潑해 졌다.

演戱時期는 正月 대보름, 端午, 百中, 秋夕等의 名節에 歲時 놀이로서 特히 百中名節에는 各地方에 보양(삯심부름)을 뛰워 名演戱者들을 招請하여 1週日씩 탈놀음을 하였다 하며, 또한 商易地였기 때문에 場이 덜 되어도 추렴하여 줄 걸고(줄타기) 씨름붙이고 山台놀이를 벌리면서 場이 열리게 했다고 한다.

演戱形態는 다른 탈놀음 같이 춤이 主가 되고 才談과 唱과 動作이 곁들여지며 伴奏音樂은 三絃六角에 염불 12拍, 打令, 굿거리 長短이 主가 되며, 춤사위는 염불거드름춤, 打令깨끼춤, 굿거리 허튼춤의 類型으로 나누며 40餘種의 춤사위로 細分化되어 있어 韓國民俗舞踊의 춤사위로 代辯할만 하다. 마당 構成도 탈놀음 12마당이 그대로 傳承되고 있으며, 假面数도 32個로 山台도감 탈들이 거의 保存되어 있어 楊州別山台에서 이미 잊혀진 해산어멈, 신할미, 무당, 신장수가면등이 남아있고 맡은 配役도 따로 있으며 比較的 古形을 保存한 面이 보인다. 또한 才談에 있어서도 数年間 原形研究結果로 指定 當時보다 3倍가량 分量이 늘어났고 內容도 充實해 졌으며 特히 옴중의 곰보타령, 취발이의 각설이타령, 巫堂의 舞歌와 넋두리 等이 새로이 발굴 採録되어 演戱되고 있다.

그동안 이 山台놀이가 많은 機會에 公演된적이 있으나 今番에는 人間文化財 4名을 包含한 総 50名이 出演하므로서 가장 많은 人員이 出演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原形을 完全히 再現하는데 그 義意를 찾을 수 있다.



마 당 解 說

松坡山台놀이의 演戱는 탈놀음에 앞서 동네를 한바퀴 돌아오는 길놀이와 고사를 지내는 일이 있다.

탈판으로 돌아오면 三絃六角伴奏에 탈놀음이 始作되는데 모두 열두마당으로 짜여져 있다.

첫째 마당 : 상좌춤놀이

첫 상좌가 등장하며 염불장단에 맞춰 사방 재배를 하고 둘째 상좌와 대무한다.

둘째 마당 : 옴중 · 먹중놀이

옴중이 둘째 상좌를 내쫓고 놀때 먹중이 등장하여 서로의 얼굴을 못생겼다고 흠을 잡으며 노는 마당으로 옴중의 얼굴생김을 빗대어 곰보타령을 사설로 늘어 놓는것이 흥미롭다.

세째 마당 : 연닢 · 눈끔재기놀이

양반인 연닢과 눈끔재기는 얼굴에 흠이 있어 과거를 못보고 돌아다니다 상민(팔먹중)들과 어울려 노는 마당이다.

네째 마당 : 북놀이

먹중들이 북을 가지고 놀다가 왜장녀에게 벗구를 치는 애사당을 등장시키게 한다.

다섯째 마당 : 곤장놀이

먹중들이 염불은 하지 않고 술만 먹고 노는것을 곤장으로 호되게 다스린다.

여섯째 마당 : 침놀이

환자 한사람을 놓고 주부와 먹중들 사이의 실갱이가 오간다.

일곱째 마당 : 노장놀이

팔먹들이 노장을 골려주며 놀다가 퇴장하면 노장이 소무를 사이에 두고 춤을 춘다.

여덟째 마당 : 신장수 놀이

신장수가 원숭이를 업고 등장하며 노장, 소무에게 신을 파며 논다.

아홉째 마당 : 취발이 놀이

술에 만취한 취발이가 등장하여 노장을 내쫓고 소무를 데리고 놀다가 해산하는 놀이이다.

열째 마당 : 말뚝이 놀이

양반집 종인 말뚝이가 주인 샌님식구를 돼지우리로 몰아 넣는 놀이이다.

열한째 마당 : 샌님, 미얄, 포도부장 놀이

샌님, 미얄, 포도부장의 애정으로 삼각관계를 나타낸다.

열두째 마당 : 신할애비, 신할미놀이

노부부의 갈등으로 신할미가 죽자 자식인 또끼와 도끼누이가 애통해 하며 무당을 불러 죽은 넋이나 위로하려고 넋두리와 지노귀굿으로 끝맺음을 하고 연희자 전원이 등장하여 난무로 흥을 돋구며 마친다.

나오는 사람들

이 충 선(악사)
이 범 만(연닢)
한 유 성(샌님)
문 육 지(눈끔제기)
이 병 옥(취발이)
함 완 식(팔먹)
안 병 인(신장수)
서 병 무(해산어멈)
김 학 식(무당)
이 영 식(노장)
김 성 운(악사)
곽 태 천(악사)

박 승 호(신할애비)
전 철 규(왜장녀)
박 온 서(말뚝이)
윤 천 수(팔먹)
김 명 하(도끼)
이 수 환(옴중)
홍 명 자(상좌)
이 규 훈(팔먹)
이 양 주(팔먹)
윤 미 자(상좌)
이 현 숙(소무)
김 명 숙(소무)

김 명 희(도끼누이)　　조 양 운(팔먹)

문 은 옥(도끼누이)　　이 태 호(팔먹)

윤 효 경(신할미)　　유 혜 숙(미얄)

오 연 순(도련님)　　마수희(뒷패)

민 지 영(애사당)　　최 길 례(뒷패)

곽 효 태(원숭이)　　박 희 숙(기수)

백 기 전(서방님)　　한 종 원(기수)

김 방 현(악사)　　김 광 섭(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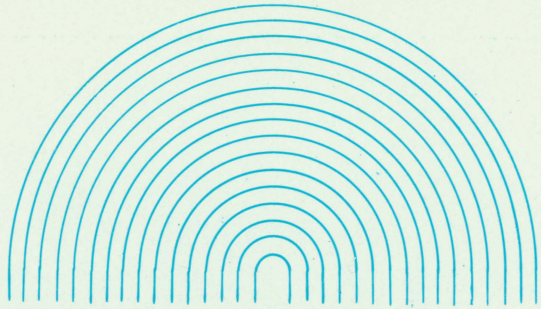
유 홍 진(쇠뚝이)　　김 종 식(기수)

장 경 철(도끼)　　김 문 선(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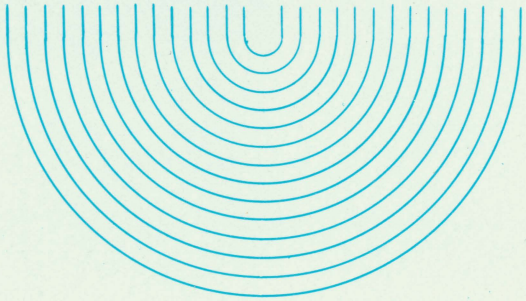
노 명 우(포도부장)　　이 재 광(뒷패)

김 대 현(팔먹)　　심 옥 천(뒷패)

김 문 수(팔먹)　　박 기 영(팔먹)



'88 서울올림픽을
문화창달의 계기로 !!



10월은 문화의 달　　10월 20일은 문화의 날